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Vol. 13 No. 3 (2011) pp. 117~133

체형인식과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남녀대학생을 중심으로-

정 수 진 · 추 미 선*†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The Effects of Somatotype, Self-Esteem, Body Satisfaction and Body Image on Clothing Attitude - Focused o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

Su-Jin Jeong · Mi-Seon Chu*†
Assistant Pr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1. 5. 25. 접수; 2011. 7. 21. 수정; 2011. 7. 2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self-esteem, body satisfaction, body image and clothing attitude according to gender and somatotype. Also the paths for the clothing attitude affected by these variables were analyzed. The data for this research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s of 210 male and 180 female college students.

Body image is categorized as three factors, 'interest in appearance', 'concern about weight', and 'satisfaction in appearance'. And clothing attitude is categorized as five factors, 'fashionability', 'status symbolism', 'modesty', 'conformity', and 'manageability' .

Male student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body satisfaction than fe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interest in appearance and concern about weight than male students. Thin somatotype showed high self-esteem, interest in appearance, and fashionability.

Fashionability was indirectly affected by gender, somatotype, self-esteem and body satisfaction, and was directly affected in the cases of high interest and satisfaction in appearance. Status symbolism was significantly affected in the cases of female students and high interest in appearance. Modesty was significantly affected in the cases of female students and low satisfaction in appearance. Conformity was significantly affected in the cases of high interest in appearance. Manageability was indirectly affected by gender, somatotype and self-esteem, and was directly affected in the cases of low interest in appearance.

Key Words: Somatotype(체형), Self-esteem(자아존중감), Body satisfaction(신체만족도), Body image(신체이미지), Clothing attitude(의복태도)

I. 서 론

체형을 포함한 신체적 외모는 대인지각 시 매력성을 증가시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체형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 가치기준에 따라 변하고, 성별과

Corresponding author ; Mi-Seon Chu
Tel. +82-55-772-1453, Fax. +82-55-772-1453
E-mail : mschu@gnu.kr

연령에 따라서도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큰 키와 마른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미의 기준이 일반화 되었다. 자신의 체형인식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신체이미지 또한 현시대의 미적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체형을 포함한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와 자아개념을 가지는 경향이 고조되고 있다.

의복은 자아의 한 구성요소이며 자아가 형성되고 확인되는 외모의 한 측면으로 자기에 대한 정체감, 기분, 태도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상징이며 자기가치, 자존심의 표현으로 지각되어 자기평가의 감정적인 요소로 인정된다(Sontag & Schlater, 1982). 그리고 의복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비언어적 상징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사회적, 심리적 영향이 크며 자아 관여가 높기 때문에 개인의 소속, 신분, 역할 등의 사회적인 면과 함께 가치, 성격, 태도와 같은 심리적인 면을 반영한다.(박혜선, 김화순, 1998). 한편 의복은 신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신체의 연장으로 작용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복을 통해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게 된다. 이처럼 적절한 의복착용은 신체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의 거리를 좁혀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며 나아가 개인의 자아존중감 또한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및 신체만족도와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할 때 형성되는 중요한 관념인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인 체형인식에 따른 신체만족도 연구(이정희, 2007), 신체이미지를 변인으로 사용한 연구(송경자, 김재숙, 2005; 이정순, 한경희, 2007; 홍금희, 2006; Cash, 1990), 체형 또는 신체만족도를 의복행동과 관련시킨 연구(조윤주, 이정란, 2004; Shim et al., 1991) 및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김순구, 윤학자, 1986; 문혜경, 유태순, 2003; 이수경, 고애란, 2005) 등에서는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의복행동에 미치는 변인으로서 체형을 비롯하여 신체만족도와 신체이미지 및 자아존중감 등에 주목하여 이들 관련 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이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효과와 경로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체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의복태도의 차이 및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들 변인들이 의복태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남녀대학생의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체형인식,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경로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체형인식

체형에 대한 인식 정도는 성별, 연령 및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실제체형과 체형인식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전경숙, 2002), Mable 외(1986)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왜곡정도가 1%인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15% 정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Jacobi(1994)의 연구에서도 남녀 대학생 모두 자신의 사이즈를 왜곡하여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특히, 여성들이 자신을 실제보다 더 뚱뚱하게 지각하였다. 성민정, 김희은(2001)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체형과 실제체형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어 객관적인 결과보다 자신을 크게 인식하고 지나치게 비만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윤자, 이승희(2001), 박우미(2000)는 한국여대생은 미국여대생보다 마른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인식에서는 더 뚱뚱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은 그 시대의 이상적

인 미와 유행 등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으며(Kasier, 1990), 외모와 신체적 경험의 주관적인 묘사로 형성되므로 변화되거나 왜곡되기도 쉽다. 남윤자, 이승희(2001)는 신체에 대한 만족은 실제체형보다 인식체형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송경자, 김재숙(2005)은 자신을 마른체형으로 인지할수록 의복과시성이 높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왜곡이 적을수록 자아개념이 높다고 하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의 평가적 구성요소로서 자기가 자신을 좋아하는 정도이다. 즉,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정도(Cooprsmith, 1967)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된다. Ford & Drake(198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대생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도 높았으며, 의복실험을 즐기며 의복흥미가 높고, 원하는 의복을 위해 쓸 돈이 충분하다는 느낌이나 옷을 멋있게 조합해서 착용할 수도 있어 의복행동에서도 자신감이 높다고 하였다. Humphrey et al.(1971)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시하고 의복을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심미성과 관리성이 높고 의복의 동조성과 심리적 의존성은 낮았으며(김순구, 박정순, 1990),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행성과 흥미성을 더욱 추구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동조성이 더 높았다(문혜경, 유태순, 2003). 藤原康晴(1986)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강한 여성이 외모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빠른 시기에 의복을 채택하며 자기다움의 표출과 동시에 새로운 스타일을 중요시하므로 유행하는 의복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착용한다고 하였다. 정명선(2003)은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에도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높을수록 자존심이 더 높고, 대다수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의 빈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감정은 자신에 대한 감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는 신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만족과 불만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의복행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박우미, 2000). 정재은, 남윤자(1999)의 연구에서 신체만족도는 실제측정치보다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Horn & Gurel (1981)은 이상적인 신체상과 인지된 신체상의 차이가 적을수록 정서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한편 Sontag과 Schlater (1982)는 성인에게 있어 의복과 관련된 자아개념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요소가 신체만족도라고 밝히고, 신체만족과 불만족은 의복으로 옮겨져서 자아존중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복은 신체불만족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박재경 외(2004)의 한국과 일본여대생의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두 나라 모두 대부분의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특히 하체 굵기와 비만 관련 항목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홍금희(2006)는 외모매력 정도가 클수록 또한 신체비만도 지수(BMI)가 낮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으며, 심정희, 박수진(2007)은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이 마를수록 신체만족도가 높고, 나이가 젊고 체형이 날씬할수록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4.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정신적 상으로 자아개념의 근본적 요소이며(조선명, 고애란, 2001),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그와 연관된 느낌과 태도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신체가 성장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증대되거나 개인이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

면화함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다(Meijboom et al., 1999). 의복은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서 신체적 자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신체적 자아라고 하는 신체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임경복, 2008), 신체이미지를 강화 또는 변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신체이미지는 의복의 선택과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쳐(Creekmore, 1974) 신체에 관심이 많고 열중할수록 의복을 통해 개성과 자기표현을 하고 기분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이상적인 신체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의복을 사용한다(조선명, 고애란, 2001). 특히 신체이미지는 신체의 치수나 형태가 변화되거나 비정상적인 관심을 가질 때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신체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김광경 외(2001)는 신체이미지를 외모관심, 신체매력, 몸매관리, 운동능력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외모와 몸매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서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신체를 돋보이려고 노력하며 의복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하며, 자신의 신체가 매력적이고 운동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복으로 개성을 추구하고 몸매를 강조하는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정미실과 이금실(2007)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여대생일수록 의복을 본인의 결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다소 과감한 연예인의 옷을 모방하거나 비싼 의복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인화(2010)는 신체이미지를 체중만족, 외모관리, 신체자신감, 외모무관심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외모관리를 잘할수록 심미성과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신체에 자신감이 있을수록 유행에 동조하는 것으로, 외모에 무관심할수록 정숙성과 기능성 및 관리용이성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심리상태 또는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소비자의 의복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으로 본다.

5. 의복태도

의복태도란 의복의 스타일과 같은 특정 대상이나 의복착용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으로,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과 사회·문화적 요소, 커뮤니케이션 상황 등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박혜선, 김화순, 1998), 자신의 의복이나 타인이 착용한 의복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등을 포함한다. 의복태도를 보면 인지적 요소는 '특정대상(의복)에 대해 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의 신념을 의미하고, 감정적 요소는 의복선호와 취향을 나타내며 '나는 의복을 좋아한다'로 표현될 수 있다. 행동적 측면은 사회 활동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의복을 잘 입는 것은 직장 승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Shim et al., 1991).

의복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박혜선, 김화순(1998)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의복태도 차원에서 유행성, 의복관여, 동조성, 정숙성, 신분상징성, 편안함, 관리성, 개성, 경제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변인 중 유행성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박정혜(2002)는 의복태도를 개인의 신념과 가치가 포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의류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것이며, 그 하위변인으로 신분상징성, 실용경제성, 사회적승인성, 유행성 등을 제시하였다. 문혜경, 유태순(2003)은 의복태도를 유행성, 동조성, 흥미성으로 분류하고 외모관심도가 높은 집단이 유행성과 흥미성을 추구하고, 외모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동조성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은희(2007)는 외모에 대한 태도는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여학생들은 의복에서 유행을 추구하고 개성과 자기표현력과 성적매력성, 심미성도 높은 반면에 신체만족도가 낮은 여학생은 정숙한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박은희, 구양숙(2008)은 의복태도를 개성추구, 유행관심, 실용성추구, 외모과시, 사회적 승인으로 분류하고 대학생들의 의복태도는 타인과 차별화된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의복은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의복태도는 신체 및 외모변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의복태도를 체형인식과 자아존중감 및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를 변인으로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선행연구의 고찰을 근거로 하여, 성별, 체형인식,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가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 성별과 체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의복태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연구문제2 : 성별, 체형과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의복태도의 관계를 규명한다.

연구문제3 : 성별, 체형 및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2. 측정도구

체형인식의 측정은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체형이 측정치인 객관적인 체형보다 의복관련 변인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남윤자, 이승희, 2001)를 바탕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인 체형인식을 체형의 변인(이정희, 2007)으로 사용하였다. 체형은 피험자가 인지하는 본인의 체형을 매우 마른, 마른, 표준, 비만, 매우 비만의 5단계로 측정하였고 매우 마른, 마른은 '마른체형', 비만, 매우 비만은 '비만체형', 그리고 '표준체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은 마른체형 43명(20.5%), 표준체형 108명(51.4%), 비만체형 59명(28.1%), 여자대학생은 마른체형 23명(12.8%), 표준체형 89명(49.4%), 비만체형 68명(37.8%)으로 분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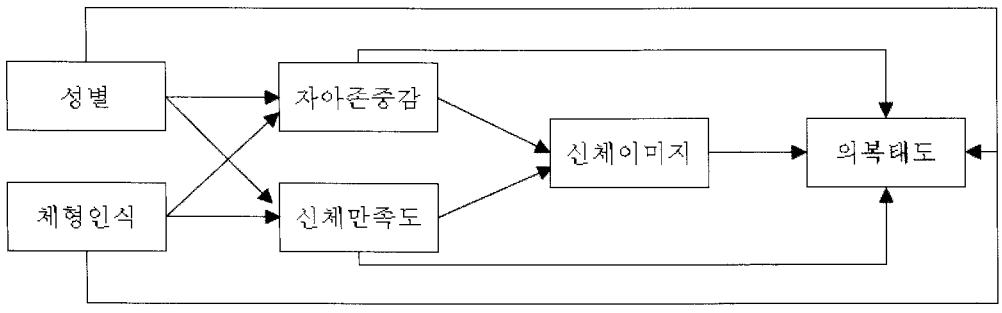
자아존중감의 측정은 높은 내적 일관성이 있는 Rosenberg(1979)의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신체만족도의 측정은 Shim et al.(1991), 박정은 외(2005)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10문항으로 구성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이미지는 Cash(1990)의 신체-자아에 관한 다차원적 설문문항인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의 하위척도를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조선명, 고애란(2001)과 홍금희(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14문항으로 구성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복태도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박혜선, 김화순, 1998; 김지영, 김준호, 2006)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20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0개 문항의 문항별 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0년 6월에 경남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남자대학생 210부, 여자대학생 180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7.0을 사용하여 신체이미지와 의복태도 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들과 자아존중감 및 신체만족도 문항들의 신뢰도를 파악



<그림 1> 연구모형

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성별과 체형에 따른 신체이미지와 의복태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관계 밝히기 위해 상관분석과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경로를 분석을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의복태도의 신뢰도 분석

1)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81, 신체만족도는 .85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에 대한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Varimax법으로 직교회전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1은 '나는 항상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분산량은 24.34%이며 '외모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나는 항상 살이 찔까봐 걱정한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분산량은 20.61%이며 '체중관심'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분산량은 17.06%였으며 '외모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이상 3 요인의 전체변량의 분산량은 62%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 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구한 결과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은 .84, 체형관심은 .85, 외모만족은 .74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의복태도

의복태도에 대한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Varimax법으로 직교회전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5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표 1> 신체이미지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고유치	전체변량의 %	Cronbach's α
외모관심	나는 항상 남들 앞에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괜찮은지 확인한다.	.816	4.09	24.34	.84
	내가 항상 멋지게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794			
	나는 항상 내 외모를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777			
	나는 남들이 나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 없다.(-)	-.712			
	나는 내 차림새가 적절하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	.677			
	나는 수시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본다.	.658			
체중관심	나는 항상 살이 찔까봐 걱정한다.	.880	2.55	20.61	.85
	나는 체중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중이다.	.858			
	나는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걱정된다.	.797			
	나는 빠른 시간에 체중을 줄이려고 식사 제한을 한 일이 있다.	.769			
외모만족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792	2.04	17.06	.74
	나는 성적인 매력이 있다.	.731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725			
	옷을 입지 않았을 때의 내 몸매가 더 마음에 든다.	.703			

<표 2> 의복태도 요인분석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전체 변량의 %	Cronbach's α
유행성	내 옷은 유행에 따르는 디자인이 많다.	.868	3.01	16.73	.87
	최신 유행에 맞춰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다.	.843			
	옷을 구입할 때 유행에 신경 쓴다.	.823			
	주변에서 유행에 앞선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801			
신분상징성	나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823	2.42	13.42	.77
	유행하는 옷이라도 나의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은 입지 않는다.	.786			
	나의 신분에 벗어나는 옷차림을 하면 불편하다.	.703			
	나는 항상 나이와 신분에 맞는 옷을 선택한다.	.685			
정숙성	TV에 노출이 심한 연예인이 나온 것을 보면 민망하다.	.833	2.30	12.76	.72
	너무 몸에 끼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당황하게 된다.	.720			
	신체를 많이 노출시킨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과 동행할 때 창피한 느낌이 든다.	.704			
	노출이 심하더라도 섹시한 스타일이 좋다. (-)	-.640			
동조성	나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	.838	1.99	11.06	.67
	모임에 갔을 때 내 옷이 친구들과 다르면 어색하게 느낀다.	.755			
	나는 옷을 살 때 친구나 동료의 의견이 듣고 싶다.	.655			
관리성	나는 옷에 드는 시간과 돈,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	.741	1.777	9.87	.60
	나는 의복을 구입할 때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인지 생각한다.	.737			
	나는 활동하기 불편한 옷은 입지 않는다.	.674			

요인 1은 '내 옷은 유행에 따르는 디자인이 많다.' '최신 유행에 맞춰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다.'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분산량은 16.73%이며 '유행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나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분산량은 13.42%이며 '신분상징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TV에 노출이 심한 연예인이 나온 것을 보면 민망하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분산량은 12.76%였으며 '정숙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나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분산량은 11.06%이며 동조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나는 옷에 드는 시간과 돈, 노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분산량은 9.87%이며 관리성으로 명명하였다. 이상과 같은 5개 요인의 전체변량의 분산량은 63.84%로 나타났다. 의복태도 문항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구한 결과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유행성은 .87, 신분상징성은 .77, 정숙성은 .72, 동조성은 .67, 관리성은 .60으로 신뢰도가 나타났다.

2. 성별과 체형에 따른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의복태도의 차이

1) 성별에 따른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의복태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의복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검증결과 신체만족도는 남자(M=4.29)가 여자(M=3.69)에 비하여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 하위항목인 외모관심에서는 여자(M=5.23)가 남자(M=4.73)에 비하여 점수가 높았으며, 체중관심에서도 여자(M=4.14)가 남자(M=3.07)에 비하여 점수가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표 3> 성별에 따른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의복태도의 차이

		성별				t
		여자(N=180)		남자(N=210)		
		M	SD	M	SD	
자아존중감		4.75	.77	4.85	.89	-1.177
신체만족도		3.69	.88	4.29	1.01	-6.229**
신체 이미지	외모관심	5.23	.96	4.73	1.05	4.857**
	체중관심	4.14	1.48	3.07	1.51	7.079**
	외모만족	3.73	.93	3.82	1.11	-.869
의복태도	유행성	3.94	1.09	3.69	1.21	2.102*
	신분상징성	5.02	.92	4.69	1.06	3.215**
	정숙성	4.23	1.03	3.47	1.14	6.939**
	동조성	3.62	1.15	3.67	1.14	-.485
	관리성	4.24	1.00	4.41	1.10	-1.643

*: $p<.05$, **: $p<.01$

보였다. 의복태도 하위항목인 유행성, 신분상징성, 정숙성에서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동조성과 관리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여자대학생은 의복의 유행에 관심을 가지며, 유행스타일을 선호하고 의복 선택 시 유행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높으며, 의복으로 자신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출이 심하거나 섹시한 스타일의 의복을 피하며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의복을 착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체형에 따른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의복태도의 차이

주관적 체형에 따른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의복태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체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신체만족도는 마른체형

<표 4> 체형인식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의복태도의 차이

		체형						F
		마른(N=66)		표준(N=197)		비만(N=127)		
		M	SD	M	SD	M	SD	
자아존중감		4.83	.98	4.88	.78	4.67	.84	2.386
신체만족도		4.27a	.88	4.24[a]	.97	3.52b	.91	26.395**
신체 이미지	외모관심	5.31a	.95	4.98[ab]	1.00	4.75b	1.11	6.403**
	체중관심	2.14c	1.17	3.51[b]	1.55	4.39a	1.24	56.345**
	외모만족	3.81a	1.12	3.99[a]	1.03	3.42b	.88	12.732**
의복태도	유행성	4.13a	1.19	3.83[ab]	1.14	3.61b	1.13	4.502*
	신분상징성	4.81	1.16	4.88	.95	4.81	1.02	.215
	정숙성	3.58	1.18	3.80	1.21	3.97	1.04	2.587
	동조성	3.77	.93	3.61	1.15	3.64	1.23	.505
	관리성	4.17	.93	4.29	1.10	4.48	1.04	2.133

*: $p<.05$, **: $p<.01$, a>b>c: Scheffe 검증

(M=4.27), 표준체형(M=4.24), 비만체형(M=3.52)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른체형(M=5.31)은 신체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비만체형(M=4.75)은 신체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에서는 3가지 체형 모두 다소 높은 분포를 보였고,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의 순으로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심은 비만체형(M=4.39)일 때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고, 마른체형(M=2.14)은 체형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외모만족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마른체형(M=3.81), 표준체형(M=3.99)이 비만체형(M=3.42)에 비하여 점수가 다소 높았고 비만체형이 외모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복태도의 하위항목에서는 유행성에서만 체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마른체형(M=4.13)이 비만체형(M=3.61)에 비하여 유행스타일의 의복과 유행을 수용하는 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 성별, 체형,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의복태도와의 상관관계

성별, 체형,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의복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자아존중감과 변인들과의 상관관계에서 비만체형은 부적인 관계(-.106)를 보였고, 신체만족도는 남자대학생(.302)과 마른체형(.119), 표준체형(.235)일 때 정적인 상관을, 비만체형(-.346)일 때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상관(.342)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와 성별의 상관관계를 보면 여자대학생이 외모와 체중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34, -.337).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은 마른체형(.149), 자아존중감(.188)과는 정적인 상관을, 비만체형(-.136)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중관심에서는 마른체형(-.405), 신체만족도(-.279)와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비만체형과는 정적인 상관관계(.362)를 보였다. 외모만족은 비만체형(-.237)에서 부적인 상관은, 표준체형(.207)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363)과 신체만족도(.597)와 높은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태도의 하위항목인 유행성은 여자대학생(-.104)과 관련이 있으며, 마른체형(.125), 신체만족도(.102), 외모관심(.375), 체중관심(.129), 외모만족(.182)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신분상징성은 여자대학생(-.157)과 관련이 있으며, 외모관심과 정적인 상관(.177)을 보였다. 정숙성은 여자대학생(-.329)과 관련이 있으며, 신체만족도(-.236) 및 외모만족(-.198)과는 부적상관이, 체중관심과는 정적인 상관(159)을 보였다. 동조성은 외모관

<표 5> 성별, 체형,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태도의 상관분석

		성별	체형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마른체형	표준체형	비만체형			외모관심	체중관심	외모만족
자아존중감		.063	.017	.086	-.106*	1				
신체만족도		.302**	.119*	.235**	-.346**	.342**	1			
신체이미지	외모관심	-.234**	.149**	.016	-.136**	.188**	.031	1		
	체중관심	-.337**	-.405**	-.036	.362**	-.057	-.279**	.186**	1	
	외모만족	.049	.021	.207**	-.237**	.363**	.597**	.231**	.061	1
의복태도	유행성	-.104*	.125*	.018	-.119*	.082	.102*	.375**	.129*	.182**
	신분상징성	-.157**	-.015	.037	-.027	.030	-.024	.177**	.017	.007
	정숙성	-.329**	-.095	-.020	.098	-.084	-.236**	-.028	.159**	-.198**
	동조성	.017	.031	-.023	.000	-.036	-.015	.164**	.001	.073
	관리성	.090	-.075	-.037	.100*	-.090	-.017	-.258**	-.024	-.077

*: p<.05, **: p<.01

심과 정적인 상관(.164)을 보였고, 관리성은 비만체형(.100)과 정적상관이, 외모관심과는 부적상관(-.258)을 보였다.

이상에서 볼 때 외모관심은 의복태도와 가장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행성은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와 정적인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경로

성별, 체형,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경로와 영향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6~7>에 나타내었으며,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그림 2~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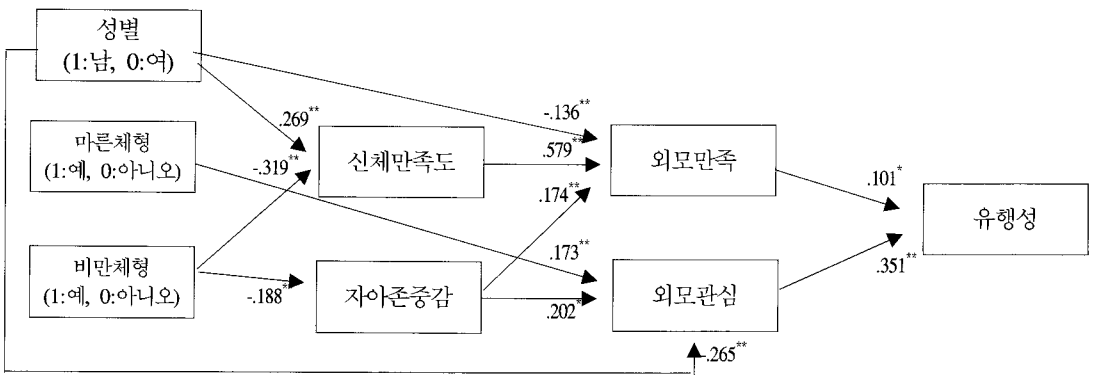
1) 유행성

유행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 및 <표 6~7>과 같다.

유행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체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외모관심(.315)이었으며, 다음으로 외모만족(.101), 성별(-.091), 자아존중감(.088), 마른체형(.061), 신체만족도(.058), 비만체형(-.035)이었다. 신체이미지의 외모관심과 외모만족은 직접적으로 유행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 및 외모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행성에 부적영향을 미쳤다. 체형의 마른체형여부는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영향을 미쳤으며, 비만체형 여부는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외모관심과 외모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과 외모만족을 통해, 신체만족도는 외모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영향을 미쳤다. 즉, 여자대학생이고, 체형이 마른 체형이거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행성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에 만족할수록 새로운 의복에 관심이 많고 수용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의복의 유행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 문혜경, 유태순(2003)의 결과 및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행을 추구하며, 유행의복을 착용한다는 심정은, 고애란(1997) 및 이은희(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2) 신분상징성

신분상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 및 <표 6~7>과 같다. 신분상징성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성별(-.162), 외모관심(.148), 자아존중감(.030), 마른체형(.026), 비만체형(-.006) 순이었다. 신체이미지의 외모관심은 직접적으로 신분상징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분상징



*: $p<.05$, **: $p<.01$

<그림 2> 유행성에 미치는 영향경로

성에 정적영향을 미쳤다. 성별은 직접 및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분상징성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른체형 여부는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영향을, 비만체형 여부는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분상징성에 부적영향을 미쳤다. 즉,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 보다 의복의 신분상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체형이 마른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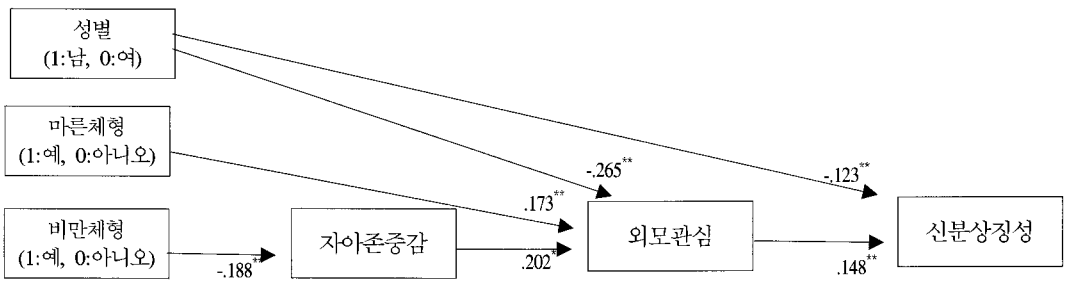
<표 6>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F	R^2
자아존중감		(상수)	4.851	.051	-	94.615**	4.396*	.011
		비만체형	-.188	.090	-.106	-2.097*		
신체만족도		(상수)	3.408	.155	-	22.037**	45.786**	.191
		성별	.536	.092	.269	5.846**		
		비만체형	-.676	.098	-.319	-6.933**		
신체이미지	외모관심	(상수)	4.511	.321	-	14.053**	18.490**	.126
		성별	-.556	.101	-.265	-5.519**		
		마른체형	.483	.134	.173	3.610**		
		자아존중감	.254	.060	.202	4.232**		
	체중관심	(상수)	6.099	.308	-	19.815**	43.377**	.311
		성별	-.812	.141	-.256	-5.753**		
		마른체형	-1.981	.208	-.470	-9.523**		
		표준체형	-.705	.159	-.223	-4.424**		
		신체만족도	-.149	.075	-.094	-1.989*		
	외모만족	(상수)	.757	.268	-	2.822**	86.618**	.402
		성별	-.282	.086	-.136	-3.300**		
		신체만족도	.601	.046	.579	13.195**		
		자아존중감	.216	.052	.174	4.152**		
의복태도	유행성	(상수)	1.453	.299	-	4.866**	34.135**	.150
		외모관심	.389	.053	.351	7.291**		
		외모만족	.113	.054	.101	2.096*		
	신분상징성	(상수)	4.519	.323	-	13.988**	9.205**	.045
		성별	-.247	.103	-.123	-2.402*		
		외모관심	.142	.049	.148	2.894**		
	정숙성	(상수)	5.719	.260	-	22.026**	31.789**	.141
		성별	-.741	.109	-.320	-6.776**		
		외모만족	-.204	.053	-.182	-3.864**		
	동조성	(상수)	2.745	.279	-	9.826**	10.661**	.027
		외모관심	.180	.055	.164	3.265**		
	관리성	(상수)	5.618	.251	-	22.347**	27.735**	.067
		외모관심	-.262	.050	-.258	-5.266**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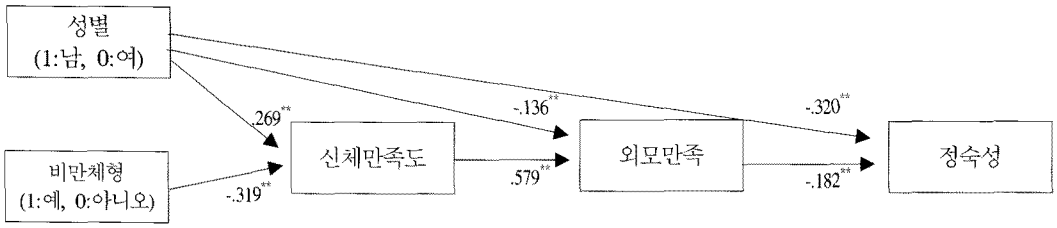
<표 7>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효과분석

의복태도	독립변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행성	성별		-.091	-	-.091
	체형	마른체형	.061	-	.061
		비만체형	-.035	-	-.035
	자아존중감		.088	-	.088
	신체만족도		.058	-	.058
	신체이미지	외모관심	.315	.315	-
		외모만족	.101	.101	-
신분상징성	성별		-.162	-.123	-.039
	체형	마른체형	.026	-	.026
		비만체형	-.006	-	-.006
	자아존중감		.030	-	.030
	신체이미지	외모관심	.148	.148	-
정숙성	성별		-.324	-.320	-.004
	체형	비만체형	.034	-	.034
	신체만족도		-.105	-	-.105
	신체이미지	외모만족	-.182	-.182	-
동조성	성별		-.043	-	-.043
	체형	마른체형	.028	-	.028
		비만체형	-.006	-	-.006
	자아존중감		.033	-	.033
	신체이미지	외모관심	.164	.164	-
관리성	성별		.068	-	.068
	체형	마른체형	-.045	-	-.045
		비만체형	.010	-	.010
	자아존중감		-.052	-	-.052
	신체이미지	외모관심	-.258	-.258	-



*: $p<.05$, **: $p<.01$

<그림 3> 신분상징성에 미치는 영향경로



*: $p<.05$, **: $p<.01$

<그림 4> 정숙성에 미치는 영향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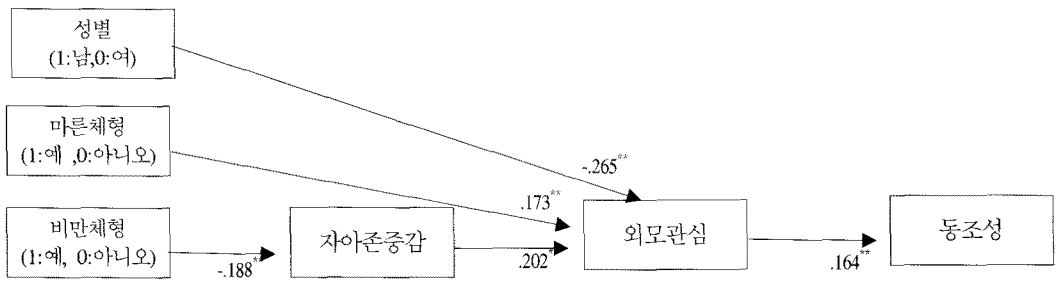
이거나 비만체형이 아닌 경우, 자아존중감 및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신분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거나 착용하는 태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3) 정숙성

정숙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 및 <표 6~7>과 같다. 정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성별(-.324)이었고, 그 다음으로 외모만족(-.182), 신체만족도(-.105), 비만체형(.034)이었다. 신체이미지의 외모만족은 직접적으로 정숙성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성별은 직접적으로 정숙성에 부적영향을 미치며,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적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비만체형 여부는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영향을 미치며, 신체만족도는 외모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영향을 미쳤다. 즉, 여자대학생이고, 비만체형이거나,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외모만족이 낮을수록 의복태도의 하위항목인 정숙성에 대해 높은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고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섹시한 스타일이나 노출의상을 착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므로 정숙성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동조성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 및 <표 6~7>과 같다. 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모관심(.164), 성별(-.043), 자아존중감(.033), 마른체형(.028), 비만체형(-.006)의 순이었다. 신체이미지 하위항목인 외모관심은 직접적으로 동조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2값이 낮게 나타나 그 영향력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성별은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동조성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체형 여부는 외모관심을 통해 정적영향을, 비만체형 여부는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을 통해 부적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쳤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적영향을 미쳤다. 즉, 여자대학생이고, 체형이 마른체형이거



*: $p<.05$, **: $p<.01$

<그림 5> 동조성에 미치는 영향경로

나, 비만체형이 아닌 경우,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관심 점수가 높을수록 의복태도의 하위항목인 동조성 점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유행스타일을 수용하는 태도가 높기 때문에 유행심리의 한 일면으로 동조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5) 관리성

관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6> 및 <표 6~7>과 같다. 관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모관심(-.258), 성별(.068), 자아존중감(-.052), 마른체형(-.045), 비만체형(.010)의 순이었다. 신체이미지 하위항목인 외모관심은 직접적으로 관리성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성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체형 여부는 외모관심을 통해 부적영향을, 비만체형 여부는 자아존중감과 외모관심을 통해 정적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쳤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외모관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적영향을 미쳤다. 즉, 남자대학생이고, 체형이 마른체형이 아니고, 비만체형일 때, 자아존중감이 낮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의복 관리성 태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성별, 체형인식,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는 그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신분상징성, 동조성, 관리성에서는 영향력이 다소 낮으나 유행성과 정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의복태도 하위영역 중 유행성과 정숙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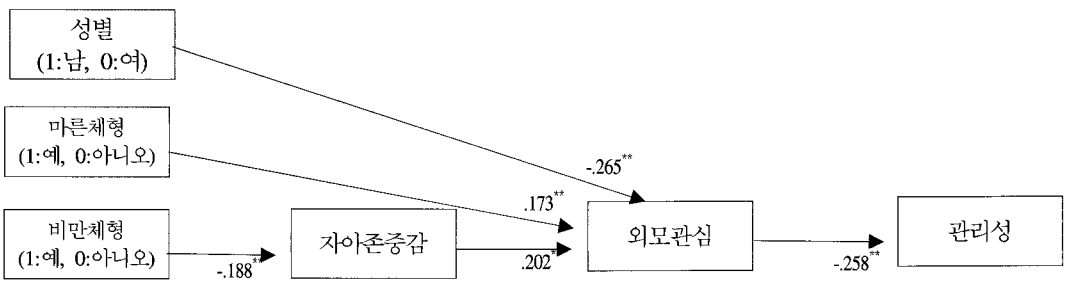
V. 결 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과 체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와 의복태도의 차이 및 이들 변인들을 의복태도와 관련시켜 분석함으로써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경로 및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체이미지는 외모관심, 체중관심, 외모만족으로 3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의복태도는 유행성, 신분상징성, 정숙성, 동조성, 관리성의 5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신체이미지 및 의복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대학생은 여자대학생보다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대학생은 남자대학생보다 외모관심과 체중관심이 높으며, 의복의 유행성, 신분상징성, 정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복태도를 보였다.

체형에 따른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의복태도의 차이 결과 마른체형은 신체만족도가 높으며, 외모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유행스타일의 의복과 유행을 수용하는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체형은 신체만족도가 가장 낮고 체중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외모에 대한 만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p<.05$, **: $p<.01$

<그림 6> 관리성에 미치는 영향경로

2. 남녀 대학생의 체형,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와 의복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복태도의 하위항목인 유행성은 마른체형, 신체만족도, 외모관심, 체중관심, 외모만족과 정적상관이 있었고, 비만체형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신분상징성은 외모관심과 정적상관이 있었고, 정숙성은 체중관심과는 정적상관이, 신체만족도 및 외모만족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동조성은 외모관심과 정적상관이 있었고, 관리성은 비만체형과 정적상관이, 외모관심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의 체형인식 및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와 신체이미지는 의복태도와 관련있는 변인으로 그 중 외모관심이 가장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효과를 살펴보면, 유행성은 여자대학생이고, 마른체형이거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유행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에 만족할수록 유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상징성은 여자대학생이고, 마른체형일수록, 비만체형이 아닐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신분상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신분상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숙성은 비만체형이거나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자대학생과 외모만족이 낮을수록 정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동조성은 여자대학생이고, 마른체형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동조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모에 관심이 높을수록 동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리성은 남자대학생이고, 비만체형이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관리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의복 관리성 태도가 높아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볼 때, 성별과 체형 및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와 신체이미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의복을 선택하고 착용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의류제품을 개발할 때 체형의 특성과 소비자의 심리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즉, 여자대학생은 외모와 체중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마른체형일수록 유행하는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모향상을 위해 의복을 이용하는 성향이 높으며, 신분상징성, 정숙성 및 동조성 또한 높기 때문에 20대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류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연령과 트렌드를 반영하고,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체형의 결점을 의복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향력 있는 대상을 모델로 한 광고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20대 남성복은 지나친 유행과 개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의복 구입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의류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비만체형은 정숙성과 관리성이 높고 자신의 체형과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정하고 활동하기 편리하며 의복관리가 편리한 소재를 사용하여 체형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존의 사이즈 체계보다 좀 더 세분화하고, 활동적응력이 뛰어난 패턴 개발을 통해 체형 적합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다각적인 광고를 통해 코디네이션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비만체형의 단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복 착용은 신체적, 정신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의복태도의 영향요인인 체형과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력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념은 심리적인 요인 및 연령과 사회, 문화적 현상에 따라 변화되어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요인을 포함한 후속연구와 올바른 시각으로 자신의 체형을 바르게 인식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자료수집을 임의표집에 의하여 경남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김순구, 박정순. (1990).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4*(4), 305-313.

김순구, 윤학자. (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남녀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김인화 (2010). 여성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과 체중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4*(9), 1442-1453.

김지영, 김준호. (2006). 여자고등학생의 사회적 일탈과 의복관심도에 따른 의복태도 및 의복일탈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3), 119-128.

남윤자, 이승희. (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736-747.

문혜경, 유태순. (2003). 자아존중감, 외모관심도와 의복태도 및 화장도에 관한 연구. *복식, 53*(4), 101-112.

박우미. (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5), 736-747.

박은희, 구양숙. (2008). 남녀 대학생의 소비가치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12*(5), 141-154.

박재경, 남윤자, 최경미. (2004). 한국과 일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및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6), 758-766.

박정은, 정수진, 강경자. (2005). 신체만족도, 의복태도에 따른 여대생의 충동구매와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985-994.

박정혜. (2002). *추구의복이미지와 의복태도에 따른 색조화장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혜선, 김화순. (1998). 의복태도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2), 279-289.

성민정, 김희은. (2001) 비만 판정지수에 의한 여대생의 체형분류 및 체형인지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3), 227-234.

송경자, 김재숙. (2005).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요구, 자아개념, 의복행동-다중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9*(3/4), 391-402.

심정은, 고애란. (1997). 청소년기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심정희, 박수진. (2007). 중년여성의 체형에 따른 의복태도. *한국의류학회지, 31*(1), 33-43.

이수경, 고애란. (2005). 여자중학생의 신체성장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한국의류학회지, 29*(3/4), 438-448.

이은희. (2007). 청년기 여학생의 외모관련태도와 의복태도와의 관련성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421-432.

이정순, 한경희. (2007). 여대생의 체형인식이 신체이미지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비즈니스, 11*(2), 145-154.

이정희. (2007). 체형과 스트레스가 신체만족도 및 선호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중년여성과 여대생의 비교 연구. *복식문화연구, 15*(6), 1084-1099.

임경복. (2008). 신체만족도에 따른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6), 882-889.

전경숙. (2002). 체형의식에 따른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 시내 여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복식, 52*(3), 75-85.

정미실, 이금실 (2007). 성형태도,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7), 131-140.

정재은, 남윤자. (1999).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 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조윤주, 이정란. (2004).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262-269.

홍금희. (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48-54.

Cash, T. F. (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In Appendix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 Pergamon Press. 125-130.

Coop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Creekmore, A. M. (1974). *Clothing Related to Body Satisfaction and Perceived Peer Self, Research Report* 239, Michigan: Technical Bulletin, Michi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Ford, I. M., & Drake, M. F. (1982).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189-196.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Humphrey, C., Klassen, M., & Creekmore A. M. (1971).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63*(4), 246-250.

Jacobi, L. (1994). In Pursuit of the Perfect Appearance : Discrepancies among Self-ideal Percepts of Multiple Physical Attribut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 379-396.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Y; Macmillan.

Mable, H. M., Balance. W., & Galgan, R. (1986). Body Image Distort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 907-911.

Meijboom, A., Jansen, A., Kampan, M., & Schouten, E. (1999). An Experimental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oncern about Body Shape and Weight in Restrained Ea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25,* 327-334.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Shim, S., Kotsiopulos, A., & Knoll, D. S. (1991).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35-44.

Sontag, M. S., & Schla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8.

藤原康晴. (1986). 女子大生の被服の関心度と自己概念および自尊感情との関係. *家政学雑誌 37*(6), 493-499.